

연예뉴스 스테이션

소녀시대, 중국 '춘절연환만회' 초청 받아



결그룹 소녀시대(사진)가 2월8일 중국 전역에 방송되는 강소위성 춘절 특집프로그램 '2016 강소위성 춘절연환만회'에 한국 가수로 유일하게 초청받았다고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가 10일 밝혔다. '춘절연환만회'에는 소녀시대 외에 리밍(여명) 귀푸청(곽부성) 왕쥔란(왕조람) 사바오랑(사보랑) 등 중국어권 유명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다. 소녀시대는 이번 특집 방송을 위해 10일 베이징 스타파크에서 진행된 녹화에서 '지' '라이언 하트' 등 무대를 꾸몄다.

김준수, 하니와 교제 관련 악플러 고소키로



그룹 JJY 김준수(사진)가 EXID 하니와의 교제와 관련해 악플러를 고소하기로 했다. 10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준수는 1일 하니와 교제 사실을 밝힌 후 인터넷상에 쏟아진 악성댓글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 악성 누리꾼을 상대로 이번 주 안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준수 측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욕설 등을 수집한 상황이다.

권진영, 3월19일 2세 연하 회사원과 결혼



개그우먼 권진영(37·사진)이 3월19일 1년간 교제해온 남자친구와 서울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신랑은 2세 연하의 회사원이다. 소속사 측은 "권진영은 예비신랑의 따뜻하고 한결 같은 성품과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2년 KBS 1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권진영은 이듬해 2TV '개그콘서트'의 '우비삼남매' 코너에서 김다래와 함께 '우비소녀'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

리암 니슨 '인천상륙작전' 촬영차 11일 내한



할리우드 스타 리암 니슨(사진)이 영화 '인천상륙작전' 촬영을 위해 11일 내한한다. 10일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리암 니슨은 이번 방문에서 자신의 출연분을 모두 촬영하고 떠날 예정이다. 체류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리암 니슨은 '인천상륙작전'에서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하는 더글라스 맥아더로 출연한다. 리암 니슨의 방한은 2012년 9월 주연작 '테이큰' 이후 두 번째다.

박진영·닉쿤, 중국 '웨이보의 밤'서 수상

박진영과 닉쿤이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5 웨이보의 밤'에서 각각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듀서상과 올해의 남신상을 수상했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10일 밝혔다. '웨이보의 밤'은 한 해 동안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를 뜨겁게 달군 스타와 화제의 인물에게 상을 주는 행사. 웨이보 측은 박진영과 닉쿤의 수상에 대해 "아시아 음악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남다른 비주얼과 비율, 언제나 젠틀한 미소로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현지 유명배우 장바이즈도 이날 배우상을 받았다.

방심위, 지난해 '과징금' 결정은 총 3건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최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결정'이 세 건이나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케이블채널 엠넷의 프로그램이다. 합합 프로그램 '쇼미더머니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 드라마 '더러버'가 각각 2000~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쇼미더머니'는 출연자의 "산 부인과처럼 다 벌려" 등 노릇말로, 드라마 '더러버'는 성행위에 대한 과도한 언급과 묘사, 욕설, 비속어 등을 지적 받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도 2014년 29건에서 56건으로 크게 늘었다.

영화 랭킹

자료:영화진흥위원회
1월 3일~1월 9일

1위 영화
정보보기



순위	영화	주관관객	누적관객	개봉일
1	히말라야	841,566	6,928,537	12/16
2	내부자들: 디 오리진	747,351	1,388,323	12/31
3	설록 : 유령신부	690,117	1,085,904	01/02
4	굿 다이노	336,280	337,550	01/07
5	몬스터 호텔 2	230,995	1,429,195	12/24
6	나를 잊지 말아요	219,620	221,018	01/07
7	스타워즈 : 깨어난 포스	159,361	3,213,490	12/17
8	조선마술사	146,862	602,126	12/30
9	포인트 브레이크	129,279	130,055	01/07
10	쌍둥이는 못말려 극장판	75,690	75,898	01/07

군 입대 앞둔 빅뱅 “올해 여한 없이 음악활동”

입대 전 '완전체', 사실상 올해 마지막 2월까지 12개국 35개 도시 월드투어 지난해 9월 미뤄진 정규앨범 발표도

일부 멤버들의 군 입대를 앞둔 그룹 빅뱅이 새해 왕성한 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내외를 넘나들며 데뷔 이후 가장 왕성해 보이는 활약에 시동을 건다. 평소 공백을 길게 이어가며 다음 무대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해왔지만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쉼 없는 활동을 예약하면서 일부 멤버의 입대 전까지 여한 없이 모습을 과시하겠다는 각오다.

빅뱅은 2월까지 12개국 35개 도시를 순회하는 월드투어 일정을 소화한다. 작년 YG엔터테인먼트(YG)와 단기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빅뱅은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을 비롯해 후쿠오카와 도쿄돔 등에서 월드투어 '메이드'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 무대까지 포함해 일본에서만 인원 약 91만명의 팬들을 불러 모을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4월 시작한 '메이드' 월드투어가 10개월의 긴 여정이어서 종료 후 휴식이 필요하지만 다시 해외 팬미팅을 갖는다. 3월부터 3개월 일정으로 고베와 후쿠오카, 나고야, 지바 등 일본 4개 도시와 중국 정저우 등을 돌며 모두



빅뱅은 올해 탑을 시작으로 한 멤버들의 군 입대를 앞두고 왕성한 활동으로 팬들을 만난다.

뉴스2

16회의 팬미팅 투어를 벌인다.

당초 지난해 9월 내려다 미룬 정규앨범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반활동도 펼칠 전망이다.

빅뱅이 이처럼 쉼 없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은 올해부터 멤버들이 차례로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87년생 탑은 올해 만 29세로 연내 입대해야 한다. 지드레곤과 태양도 1988년생으로 입대가 멀지 않았다.

태양은 지난달 홍콩에서 열린 엠넷 가요 시상식 '2015 MAMA'에서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한 후 "다섯명의 멤버가 '완전체'로 '마마' 시상식에 참가하는 건 앞으로 오랜 기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군 입대를 염두에 둔 듯한 인사를 건네 눈길을 모았다.

지난해 빅뱅은 3년 만에 컴백해 여러 기록을 남겼다.

국내 음원시장 1위를 휩쓴 것은 물론, 미국

빌보드가 꼽은 '2015 최고의 케이팝 노래' 부문에서 '뱅뱅뱅'으로 1위에 올랐다. 중국 쿠키뮤직 2015년 연간차트 톱30에서도 '판타스틱 베이비'와 '루저' 두 곡이 각각 14위와 19위를 기록, 해외가수로는 유일하게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이들의 성과가 큰 만큼 군 입대 공백의 아쉬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심은하, 연예계 복귀 카운트다운!

영화계·패션업계 관계자들과 교류 활발 기획사 접촉·영화 시나리오 전달 등 확인

배우 심은하(44)가 연예계 복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심은하가 최근 영화계와 패션업계 관계자들과 본격적으로 교류하는 한편 영화 촬영현장에 두 딸과 나타나면서 복귀에 대한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다. 연예계에서는 달라진 그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든 최고의 여배우로 꼽히는 심은하는 2001년 은퇴하고 2004년 결혼한 뒤 12년째 활동을 멈춘 상태다.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의 아쉬움 탓에 그간 몇 차례 복귀설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소문'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눈에 띄기 시작한 복귀 움직임은 최근 들어 신빙성을 더하

고 있다.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공개적인 행보에까지 나서면서 '복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관측이 나온다.

실제 심은하는 최근 연예계 관계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주 가까운 이들의 조언 속에 드러내지 않고 신중하게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10일 "심은하의 움직임을 간파한 일부 기획사가 영입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며 "최근 한 제작진이 심은하에게 대본을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연예계에서는 심은하의 복귀 시점이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남편인 새누리당 서울 중구 지상욱 당협위원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로 나서 출마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심은하는 지난해 12월30일 남편과 나란히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담은 연하장을 지인에게 보내 새

해 인사도 건넸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두 딸의 육아와 내조에 전념해온 심은하가 두 딸의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남편의 선거까지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부담을 덜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심은하가 영화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있는 '변화'도 복귀 입막에 힘을 더한다. 심은하는 지난해 12월29일 영화 '인천상륙작전' 경남 합천 촬영장을 두 딸과 찾았다. 평소 연기에 관심이 많은 딸에게 촬영장을 보여주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외부에 공개된 야외 촬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숨은 배경에 더 시선이 쏠렸다. 심은하는 은퇴 전부터 신뢰를 나눠온 영화계 지인들과 최근에도 꾸준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이들을 통해 여러 영화의 시나리오를 전달받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꽃보다 조정석’…예능·뮤지컬까지 종횡무진

tvN '꽃보다 청춘' 2주 연속 동시간대 1위 2년만의 뮤지컬 '헤드윅', 10분만에 매진

배우 조정석이 새해 초부터 발군의 활약을 과시하고 있다. 30대 중반 남자배우의 흔치 않은 상승세에 연예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조정석이 드러내는 활약상은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우선 시청률. 데뷔 이후 첫 예능프로그램인 tvN '꽃보다 청춘'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채널을 통틀어 2주 연속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1일 9.1%(닐슨코리아)로 시작한 8일 9.6%의 시청률을 나타냈고, 순간 최고치는 12.6%였다. 역대 '꽃보다' 시리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꽃보다 청춘'은 조정석과

정우, 정상훈 등 데뷔 전 '절친'들이 아이슬란드로 떠난 여행의 에피소드를 담은 프로그램. 조정석의 엉뚱하면서도 꾸미지 않은 모습이 시청자의 호감을 얻고 있다.

2014년 '블러드 브라더스' 이후 2년 만의 뮤지컬에서도 흥행 파위는 컸다. 3월1일부터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막을 올려 출연하는 뮤지컬 '헤드윅'이 8일 입장권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매진됐다. 동종 출신의 트랜스젠더 로커의 이야기를 그리는 뮤지컬에서 조정석은 주인공 헤드윅 역을 맡았다. 2011년 이후 두 번째 출연이다.

앞서 tvN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에 이어 '꽃보다 청춘'까지 이처럼 조정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는 최근 건강음료, 아웃도어, 식품 등 4개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나서고 있기도 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응팔’ 대박에 CJ E&M 대표 ‘밥차’ 이벤트까지

“밤샘촬영에 고생이 많다”…응원차 준비

케이블채널 tvN 금토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종영까지 2회를 남겨두고 끝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 채널을 보유한 CJ E&M도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10일 드라마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응답하라 1988'(응팔) 경기도 의정부 세트에 CJ E&M(CJ) 김성수 대표가 마련한 '밥차'가 등장했

다. 그동안 일부 출연자와 친분이 두터운 조인성 등 동료들이 응원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한 적은 있지만, CJ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 이어서 시선을 모았다.

김 대표는 직접 현장을 찾진 못했지만, 테이블 매트에 "밤샘촬영에 고생이 많다" 등 자신의 마음을 담은 응원의 문구를 담아촬영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출연진과 제작진을 격려했다. '응팔'의 성과에 대한 감사와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조정석은 tvN '꽃보다 청춘'의 시청률과 뮤지컬 '헤드윅'의 매진 사례로 진가를 과시하고 있다.

'응팔'은 CJ가 보유한 수많은 채널 중 tvN이 만들어낸 최고의 콘텐츠로 평가받는다. 앞선 '응답하라' 시리즈를 잇는 연이은 성공으로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뒤지지 않는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9일 방송한 18화는 17.8%(닐슨코리아·유료플랫폼가구)의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다. 1·2일 결방에 따라 각종 스폰서들이 난무해 우려가 컸지만 시청률이 증명하듯 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욱 뜨거워졌다.

관련 매출 규모도 이미 211억원이 넘는 수치로 이전 시리즈를 한참 전에 넘어섰다.

백슬미 기자 bsm1@donga.com

개그우먼 이희경 양준혁 매니저와 결혼

1년간 열애…4월 9일 웨딩마치

개그우먼 이희경(32·사진)이 야구스타 양준혁의 매니저와 4월9일 결혼한다.

두 사람의 측근은 10일 "이희경이 예비신랑과 1년 정도 연애를 해오다 드디어 4월9일 결혼식을 올린다"면서 예비신랑은 양준혁의 소속사인 JH스पोर्ट에이너의 정민수 매니저먼트본부장이라고 밝혔다. JH스पोर्ट에이너는 양준혁이 2010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를 끝으로 선수생활을 마감한 뒤 설립한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다.

이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희경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서울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데이트를 해왔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 본부장이 이희경이 아닌 그의 어머니에게 먼저 프리포즈(?)를 하며 결혼 승낙을 받았다는 점이다. 측근은 "벌써부터 예비사위에 대한 예비장모의 사랑이 각별하다"며 "정 본부장이 다정다감한 성격답게 온 가족을 살뜰하게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경은 2010년 KBS 25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2011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부문 여자상 등을 받으며 활약해 왔다. 지난해 KBS 2TV '개그콘서트'의 '헬스걸'에서 32kg을 감량해 화제를 모았다. 현재는 EBS 라디오 '영아! 할 수 있다 캔!캔!캔!'을 진행하며 뛰어난 영어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sss23@donga.com

